

이코노 & 비즈 피플

포브스 최고경영자대상 받은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현장·소통경영으로 조직혁신 일궈내

1년 365일 현장 찾는 '발로 뛰는 사장' '런치데이' 등 직원들과 씩없는 스킨십

'현장 중심의 경영'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이래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생활의 모토로 삼은 말이다. 그는 이러한 신조에 따라 현장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고 보고 민원인과 직원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5일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중앙일보에서 후원하는 '2013년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소통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 사장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 10월 취임이래 현장경영과 대내·외 소통을 통한 감성경영, 104년만의 가뭄극복 노력과 고객감동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취임 일선으로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비전을 제시한 박 사장은 재임 중 실천해야 할 4대 전략과 128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임·직원의 역량을 총괄집해 농어촌공사가 기획

재정부로부터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고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비전창출을 위한 변화는 조직 구조 개편부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대내·외 농어촌환경의 변화와 공사의 중장기 전략에 맞게 조직체계를 본사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별로 정밀 산정기준을 재정립해 미래 성장사업인 농어촌지역 개발과 해외사업부문의 인력을 보강했다. 또한 고졸자와 농어촌차녀에 대한 채용 확대와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를 제도화했고 전직원 성과 연봉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인력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단행했다.

그는 1년 365일 현장을 찾는 '발로 뛰는 사장'으로도 유명하다. 취임 이후 현장방문과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내·외 총 11만km의 거리를 뛰었을 정도다.



취임 초기 2011년 11월 충남 당진의 석문간척지 영농소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본사로 올라오려 하자 이를 만류하고 이튿날 곧바로 현장을 찾아 농민의 애로를 해결 한 적도 있다. 또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는 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근 작전상 조기완공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활동

을 실천했다.

박 사장은 또 직원 간 내부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직원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 '허심탄회' 제도를 운영하며 직급별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월례조회를 정례화해 'CEO가 들려주는 이달의 시 낭송'과 'KRC-참일꾼 포상'으로 경영철학과 경영의지를 전파했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과 오찬을 함께하는 '런치데이'를 운영하고 지방부서 방문 때는 반드시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기관장'으로서의 권위에서 탈피한 소통형 리더십을 발휘했다.

박 사장은 수상 소감으로 "농업 정책은 무엇보다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취임과 함께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를 현장에 두고 농어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bigkim@kwangju.co.kr



백화점 증기제품 판매장터 2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개막한 '광주전남 농공산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장에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광주신세계가 공동 주관해 오는 5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총 26개의 업체의 지역 우수제품이 전시·판매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폐지

대부업 제외 제2금융권 포함...보증자 대한 대출 규제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대한 대출을 통해 연차특을 유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 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

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온 것이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 기존 연대보증자들에 대한 대출을 통해 연차특을 유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신·기보는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으나 최근 국회 정부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연대보증 예외가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며 연

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소용사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노점상 등 극빈층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일부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금융소득 신고대행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순수 개인 고객(개인 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개인

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지난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농협 전남쌀 판매 확대 전략회의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24일 광주전남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표·장장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판매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 쌀 유통시설 확충 및 엄격한 보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친환경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친환경쌀의 판매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공동

마케팅 전개를 통한 전남쌀 제 값 받기 노력을 하고,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전국 12대 브랜드 10명패를 소비자와 함께 나누는 전남명품쌀 대도시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농협지역본부는 오는 6월 전남도와 함께 착한 쌀 추제를 수도권, 제주, 경주권 등에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전남쌀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달부터 불법 채권추심 신고하면 포상금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오후 9시 이후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50만원 규모다. 이르면 5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연합뉴스

은행 1분기 중소기업 대출 12조원 사상 최대

작년보다 33%나 늘어

은행들이 올해 1분기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조원의 대출을 확대 공급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부분이 우량기업이나 담보·보증 위주 대출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에 약 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9조2000억원에 견줘 33%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 30조8000억원의 40% 가량이 3개월 만에 채워졌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은 6조3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과거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은 자영업자 대출이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대

출을 늘린 것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법인 대출에 주력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좋거나 담보가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편중됐다. 은행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10~19단계로 자체 등급을 매겨 이 가운데 상위 등급에 주로 돈을 빌려준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들의 1분기 중소기업 대출의 세부 실적을 분석,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and the Sydney Opera House. Text includes '세계보청기',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etc.), contact numbers (1588-8499), and a list of regional branch addresses.